

기능별로 달라지는 우체국 이름

박종흥*

인터넷, GPS, WiFi와 같은 용어는 더 이상 전문가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10년 전 만해도 전문가 그룹, 그 전에는 군과 같은 특정 집단에서만 알고 있는 고도의 기술적 용어였지만 휴대폰, 인터넷, 네비게이션과 같은 첨단기들이 보편화되면서 평이한 용어가 되어 버렸다. 이와 같이 한 때는 “기술”에 해당되는 전문지식이 시간이 지나면 상식이 되곤 한다.

우정정보지의 특성상 “기술”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제목을 쓴다면 독자들은 아예 들춰보지도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본 칼럼을 기술보다는 편안한 그래도 상식보다는 조금 전문성이 있는 내용을 다루기 위해 “상식+”란 제목으로 만들어 보았다. 우편의 전반적인 업무와 전문 지식이 필요한 독자층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

I. 우체국 이해하기

“광화문 우체국”, “광진우체국”, “둔산우체국”과 같이 동네 이름을 앞에 붙인 우체국 외에도 “우편집중국”, “물류센터”, “국제우편물류센터”란 간판을 단 건물을 종종 본다. 우체국 관계자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 “우체국”이란 용어 대신 “총괄국”, “집배국”이란 단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하는데 언뜻 그게 그거 같지만, 당사자들은 그 용어를 통해 정확하게 의사를 전달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처럼 무엇인지 모르지만 다른 의미를 가진 우체국 이름들이 사용되고 있고, 영어로도 그냥 Post Office라고 하면 될 듯한데, “Mail Center”, “Mail Sorting Center” 등 다양한 표기가 보이는 것으로 봐서 우체국 업무에 따라 이름과 기능이 달라지는 모양이다.

* ETRI 우정물류기술연구부장, jpark@etri.re.kr



일반 고객은 누군가 우체국에 가서 소포나 편지를 내게 보내면 집배원이 알아서 우리 집까지 그것을 배달한다고 알고 있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우체국과 관련된 일을 하고자 한다면 우편물이 배달되는 복잡한 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기능별로 달라지는 우체국의 이름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편물 흐름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II. 우체국의 다양한 역할과 이름

우체국은 도시, 산간벽지, 섬 지역 할 것 없이 가리지 않고 편지며 소포를 배달한다. 일반 택배 회사와 비교해 볼 때 우체국만이 갖고 있는 강점이 바로 방방곡곡에 펼쳐져 있는 우체국 망(네트워크)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국에 산재해 있는 3,600여 개의 우체국을 이용하면 편지와 소포를 전국 어디든 배달할 수 있어 가장 광범위하고 강력한 물류 네트워크이다.

3,600여 개나 되는 우체국들 중 대부분은 우편물을 접수하고, 구분해 운송·배달하는 업무를 담당하지만 일부 우체국에서는 우체국 간의 우편물을 전달만 해 주거나 우편물을 수집만 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차별화된 우체국 기능을 두는 것은 보다 효율적으로 우편을 전달해 주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우편사업자들이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다.

우체국은 운영 주체에 따라 나라에서 설치하고 운영하는 일반 우체국과 나라에서 우편 업무를 민간인에게 위임하고 민간인이 운영하는 별정우체국과 우편취급국, 대형 기관이나 건물의 요청에 따라 무상으로 설치하는 무상임차국 등으로 나뉜다. 우체국은 보통 시·군·구 등의 기초 자치 단체 단위로 1국이 설치되거나 동이나 면 단위로 1국이 설치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국가가 직접운영하지 못할 경우 1면 1국 설치 방침을 지키기 위해 “별정우체국”, 즉 개인이 시설을 갖추고 나라가 위임한 일정 업무를 맡고 있는 우체국을 운영한다. 별정우체국장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원과 같은 사무를 처리하며 일반적인 대우도 비슷하다. 우편취급국은 예금과 보험을 취급하지 않고 우편 업무만 맡고 있고 우체국이 없는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해 설치하고 있다. 그 밖에 무상임차국은 기관의 요청에 따라 무상으로 설치되며 우편물 취급이 많은 관공서나 기업에서 흔히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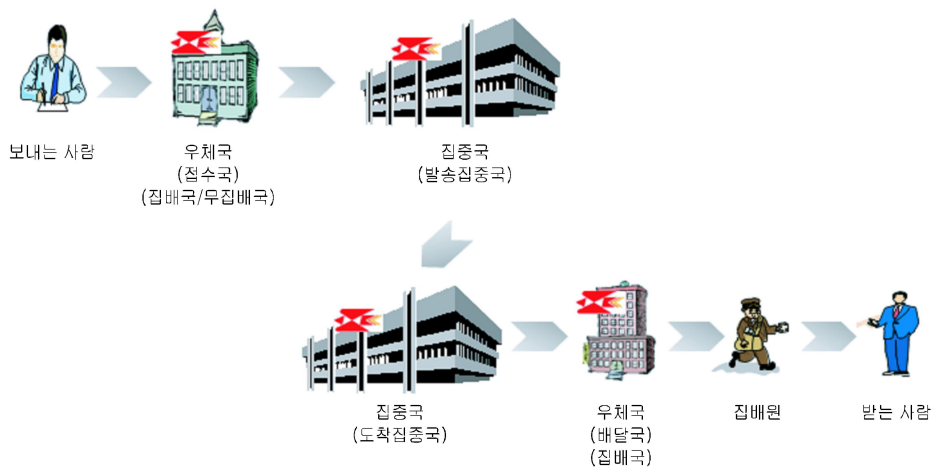
우정사업본부의 고유 업무와 규모를 정의하기 위해 우체국장의 직위에 따라서는 서기관국(4급), 사무관국(5급), 주사국(6급), 주사보국(7급)으로 나누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우체국들은 갖고 있는 기능에 따라 다시 집배국, 무집배국, 우편집중국 등으로 나뉜다. 집배국은 총괄국이라고도 불리며 이름 그대로 수집과 배달 업무를 모두 한다. 창구 접수 업무와 집배원이 우체통에 담긴 우편물을 지정된 시간에 수거하고, 우편물에 표기된 수취인(반송하는 경우에는 발송인)의 주소지로 배달하는 집배 업무를 함께 담당한다. 무집배국은 대개 창구에서 우편을 접수하는 업무만을 맡는데, 총괄국의 관할 아래에 있어 일반적으로 관내국이라고도 부른다. 곧 우편물을 수집하거나 배달하는 일은 다루지 않고, 오직 창구 업무만을 하고 있다. 따라서 집배국은 무집배국에 비해 큰 규모이며 우리나라 우체국 가운데 집배국은 500여 개이고, 무집배국은 3,000여 개에 이른다.

우편집중국은 앞에 말한 우체국들과는 기능과 역할이 확연히 다르다. 일반인들이 접할 기회가 적을 뿐 아니라 출입이 통제되는 시설이다. 이 집중국은 우편 물량이 많아지면서 수작업 구분을 기계로 자동화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것으로 그 규모가 축구장보다 크다. 그 큰 공간에 대형 소포구분기, 패킷구분기, 서장(편지)구분기들이 설치되어 있고, 주로 저녁과 밤 시간에 매우 바쁘게 돌아간다. 저녁 시간에만 가동하는 이유는 전국 우체국에서 접수된 우편물들이 운송차로 밤

에 도착하면, 밤 새 구분한 우편물을 새벽에 다시 우체국으로 옮겨야 그 다음 날 고객에게 전달 되기 때문이다. 우편집중국은 우체국간의 우편물을 전달하는 매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편 물량과 운송 거리, 그리고 보유한 설비들의 처리 능력을 감안해 관할 집배국과 무집배국을 포함하는 수용권역을 설정하고 조정하면서 운영한다. 요즘은 다량 우편물을 제작하는 전문 기업들이 아예 이 집중국에 상주하면서 우편물을 만들어 접수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도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전국에 25개의 우편집중국(Mail Center 또는 Mail Processing Center)과 이와는 좀 다르지만 유사한 크기 우편물류센터가 3 곳에 설치되어 있다. 앞으로 물량 변화에 맞추어 추가로 집중국이나 물류센터가 건축될 예정이다.

[그림 1] 우편물 소통 흐름도



이와 같은 기능별 우체국의 명칭을 알았으니 이 이름을 사용해서 우편물 소통 과정을 그림을 이용해 살펴보자.

먼저 우편물은 보내는 사람이 우체국(이 때는 접수국이라 부르며, 집배국과 무집배국 모두 해당)에서 접수한 우편물은 모두 그 지역 우편집중국(같은 집중국이라도 이럴 때는 발송 집중국이라 부름)으로 보내지고 행선지별로 분류(구분)된 후 다른 지역 우편집중국(마찬가지로 도착

집중국이라 부름)으로 이동되고, 이것을 다시 구분해 수신자가 살고 있는 인근 우체국(배달국/집배국)으로 배달된다. 이처럼 우편물이 우체국을 옮겨 가는 단계에 따라 같은 기능의 우체국이라도 접수국, 배달국이라고 불리며, 동일한 집중국이라도 우편물이 흐르는 순서에 따라 발송집중국과 도착집중국으로 불린다.

이와 같이 조금만 관심을 갖고 보면 우편물의 배달과정에서 기능별로 달라지는 이름과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기능별로 우체국 이름을 다르게 하는 것은 정확한 우편 업무와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고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는 습관이다. 이런 모든 우편 시설들을 일반인처럼 단지 “우체국”으로만 부르면서 일한다면 우편관계자들의 업무는 바로 마비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박종홍·김인수·엄보윤, “훤히 보이는 우편기술”, 전자신문사, 2009. 12